

입당송 | 시편 25(24),1-3 참조

하느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저를 보고 좋아라 날 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이다.

제1독서 | 이사 2,1-5

화답송 | 시편 122(121),1-2.4-5.6-7.8-9(◎ 1 참조)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 “주님의 집에 가자!”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 예루살렘의 평화를 빌어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은 평안하리라.

너의 성안에 평화가 있으리라. 너의 궁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

○ 나의 형제와 벗들을 위하여 비노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 우리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나는 기원하리라. ◎

제2독서 | 로마 13,11-14ㄱ

복음환호송 | 시편 85(8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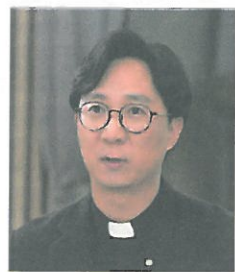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음 | 마태 24,37-44

영성체송 | 시편 85(84),13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수용 이나시오 신부 |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어려운 기다림 vs 쉬운 기다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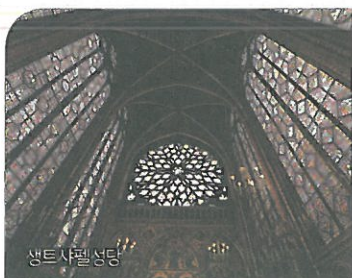
여러분은 다음 중 가장 참기 힘든 것이 무엇이신지요?
1) 엘리베이터에서 닫힘 버튼 누르지 않기, 2) 버스 정류장에서 남은 도착 시간 확인하지 않기, 3) 전자레인지 문 열지 않고 타이머 끝까지 지켜보기

세 사례의 공통점은 다들 짧게는 몇 초, 길어도 몇 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일들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내가 따로 누르지 않아도 엘리베이터 문은 닫힙니다. 시내버스는 도착 시간을 확인한다고 해서 더 빨리 오지 않습니다. 전자레인지 역시 내가 입력한 시간이 다 지나야 '땡' 하는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을 기다리는 일을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일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순간을 힘들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고, 버스 도착 시간을 계속 확인합니다. 전자레인지는 아직 10초가 남았어도 먼저 문을 열어 작동을 종료시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복음은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의 시기가 시작했습니다. 대림(待臨) 시기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전례적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4주간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사실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을 기다린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상에서 아주 짧은 순간 기다리는 것도 어려워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더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음식이 데워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앞서 예를 든 경우는 상황이 바뀌고 일이 완성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렇게 12월 25일,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수동적으로 시계와 달력만 보며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신앙적 의미로 우리의 기다림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니 깨어 있어라.”(루카 24,42)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말은 졸음을 참으며 억지로 견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완성을 이루실 때가 언제일지 모르니 잘 “준비하고 있어라.”(루카 24,44)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금 나는 무엇에 취해있는지부터 깨닫는 것입니다. 돈입니까? 허영입니까? 자만입니까? 깨어 준비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 지금 내가 취해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능동적으로 주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힘든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마태 24,44)

구약성경의 예언대로 사람이 되어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 제1주입니다. 생트샤렐성당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과 십자가의 나뭇조각을 보관하기 위해 건립한 성당입니다. 구약성경의 창세기를 시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까지 시대 순으로 1,134장면을 유리화에 담았습니다. 전례력으로 한 해를 준비하며 깨어있어야 하는 대림 시기에 성경 말씀을 소재로 담은 스테인드글라스로 묵상하고 시작합니다.

김문숙 요셉파나 | 가톨릭사진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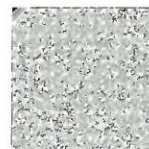




세상을 밝히는 빛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가장 감사한 것은 새로운 열매가 맺어질 때마다 경이롭고 놀라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4년, 한 시계 브랜드의 런칭 행사를 진행하며 엘이디(LED) 장미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행사 개최지로 결정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앞 잔디 언덕을 꾸미기 위해 당시 제품의 주제였던 '나비'에 맞춰, 어두운 밤에도 나비가 찾아올 수 있는 특별한 꽃을 고민하다가 '엘이디 장미'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실패를 거듭한 끝에 결국 빛나는 엘이디 장미가 완성됐고, 총 2만 5천 송이의 엘이디 장미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잔디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행사는 성공적이었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엘이디 장미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곳곳에 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소아암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이디 장미를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기부 행사에 활용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좋은 의도였기에 저도 재능 기부로 동참했습니다. 한 사람 앞에 단 한 송이씩, 10달러에 판매된 엘이디 장미의 수익 전액은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엘이디 장미를 사기 위해 불평 한마디 없이 줄을 서고, 손수 런던 센트럴 파크에 장미를 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은 결코 제가 이룬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능력과 지혜 그 이상을 이루시고, 제 생각과 시야 그 너머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느님의 손길. 저는 그저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작은 종일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사를 위해 제작된 엘이디 장미가 온 세상을 누비며 아픈 아이들의 희망이 되고, 지친 사람들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세상을



김용배 사도요한
가톨릭 스카우트 부연맹장, 제바보의나눔 이사

밝히는 빛은 사람도 장미도 아닌 하느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눈앞에서 바라보면서 하느님 앞에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미미한 존재를 확인하고, 하느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에 감사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명동성당 들머리에 이 엘이디 장미를 심으며, 그때의 마음을 되새깁니다. 엘이디 장미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장미를 지탱하는 단단한 줄기를 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한 후 빛나는 장미를 보면서 평생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뒷받침하는 단단한 줄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삶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튼튼한 줄기가 되길 꿈꿉니다. 그렇게 세상을 밝히시는 하느님을 순전한 믿음으로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한껏 묵상



너희는
준비하고
가게 앞이라

류상애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40

은총과 구원의 통로 = 성사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성사(聖事, Sacramentum)란 무엇일까요? 가톨릭 신자들에게 물어보면 ‘7성사’를 떠올립니다. 틀린 답은 아니지만, 완벽하게 맞는 답도 아닙니다. 성사란 더 넓고 깊은 의미를 포괄합니다. 성사란 ‘하느님 은총 자체’이고, ‘은총을 받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성사는 하느님이 주시는 모든 은총이고, 동시에 성사라는 도구와 방법을 통해 하느님 은총을 전달받습니다. 7성사 외에 준성사, 기도, 선행, 자선, 봉사, 극기, 희생, 단식 등이 모두 하느님 은총을 체험하고, 전달받는 ‘성사’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구원 역사로 가득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역사(구세사)는 성사적 특성을 지닙니다. 구약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러 사건과 은총 체험으로 가득합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극명하게 계시하신 사건은 이집트 탈출입니다. 히브리 백성을 탈출시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느님이 그들 조상과 맺은 약속에 따라 선택하신 백성을 돌봐주신 것입니다. 둘째,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느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즉 하느님 백성이 모여 당신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백성을 탈출시키셔서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하느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계약의 구체적 실천사항이 계명이고, 그들에게 ‘10계명’이 내려집니다. 하느님 백성은 먼저 하느님 은총과 구원의 대상이고, 이후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느님 은총과 구원의 도구입니다. 하느

님 은총의 대상이자 도구인 이스라엘 백성은 ‘성사적 백성’입니다.

새로운 계약(신약)의 주체와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그리스도(=메시아, 구세주,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 말씀)로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고 보편적인, 즉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 삶 전체를 통해 구원의 길과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 즉 복음이 구원 은총이고 수단이며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성사 자체, 즉 눈에 보이는 하느님 은총 자체이시고 은총을 전달해 주시며, ‘하느님의 신비’(로마 2,2)입니다.

하느님 은총을 받는 길은 진리의 길이자 생명의 길(요한 14,6 참조)이신 예수님입니다. 모든 은총의 원천이자 성사 자체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세우신 교회에 7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느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는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고, 이 현존 체험을 통해 하느님께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교회는 성사를 통해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하도록 도와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교회헌장』 1항) 하느님의 성사이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구원 은총을 전달해 주십니다. 하느님을 마주하는 것(1코린 13,12 참조), 즉 지복직관(至福直觀)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길은 교회의 성사를 통해서입니다.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주요 내용)



양주열 베드로 신부 | 통합사목연구소 소장, 시노드 교구 실무자

전국 16개 교구가 제출한 종합문서와 교구 책임자 모임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종합한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이하 의견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의견서의 서론에서 한국 교회는 시노드 진행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구 공동체별로 만남과 경청, 식별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피력됩니다. 하느님 백성이 서로의 신앙 체험을 공유하며, 시노드 교회를 직접 체험한 점은 한국 교회 교구 단계의 큰 의의라는 것입니다.

의견서의 본론에서는 한국 교회의 시노달리타스 현실에 대한 종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시노드 편람과 예비문서에서 제시된 10가지 핵심 주제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여정의 동반자’에서는 하느님 백성인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서로에게 온전히 동반자가 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 노인들, 이주민, 북한 이탈 주민, 가난한 이들과 교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교회가 함께해야 할 필요성도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을 존중하고 지원하며,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에 대한 교회의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습니다.

‘경청’과 ‘발언’에서는 함께 걸어가는 교회 여정에 대한 동반자적 인식과 믿음의 부족이 경청의 부족으로 이어졌음을 진단합니다. 이에 따라 소통의 수평적 구조를 이뤄야 함을 역설합니다. 또한 용기 있는 발언을 격려하고 포용하며 경청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거행’과 ‘사명 안에서의 공동 책임’에서는 말씀의 경청과 성찬례 거행이 친교의 원천이자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하는 교회를 향한 출발점이라는 자각을 표명합니다. 교회가 폐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중심으

로 하는 친교 안에서 참여하고 경청하고 체험을 나누는 시노드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사회 안에서의 대화’에서는 현재 논의되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들과 함께’에서는 타교파 그리스도인 역시 우리와 함께 걷는 동반자로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제안하였습니다.

‘권위와 참여’에서는 수직적이며 닫힌 구조를 개선하여 시노드 정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와 조직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교적 기준에 적합한 봉사자로 사목평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식별과 결정’을 통해 교회의 의사 결정은 여론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에 근거해야 하며, 하느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시노달리타스 안에서 이루는 우리의 양성’에서는 시노달리타스가 교회의 생활 방식이자 활동 방식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말하는 능력과 경청 방법, 그 안에서 성령의 말씀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한국 교회가 복음화를 위해 지속해야 하는 전례와 성사 교육,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마련, 가난한 이들과 약자들을 위한 노력, 한반도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 생태계와 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을 제안하였습니다.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 전문은 서울대교구 시노드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헨델(1685-1759) | 사진출처: 음악의 역사(음악사대도량)

음악칼럼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알려주는 음악 헨델 <메시아>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맞을 4주간의 시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전세계 교회는 물론 공연장 여기저기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이 바로 헨델의 <메시아(Messiah)>죠.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 합창곡을 듣지 않고서는 성탄절을 맞을 수 없고, 가는 해도 새해도 만나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헨델(Georg Friedrich Handel, 1685-1759, 독일-영국)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애초에 성탄이나 송년엔 연주되도록 작곡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크 시대의 대표 작곡가 헨델은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20대 초반에 당시 음악의 종주국이었던 이탈리아에서 많은 것을 익힌 후, 음악이 귀족과 부르주아 계층의 오락거리로 성행하던 영국으로 건너가 작곡가뿐 아니라 음악 사업가로서도 크게 성공합니다. 이때 영국 관객의 인기를 끈 헨델의 음악은 주로 오페라였는데, 재미있는 것은 독일 사람이 영국에서 이탈리아어로 된 오페라를 만들어 전성기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나갈 때 시기하는 이들이 없을 수 없고, 외국어로 된 귀족 취향의 오페라를 누구나 다 재미있어 할 수는 없겠지요. 헨델의 승승장구에 배 아파하던 세력과 영어로 된 풍자적인 서민 오페라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헨델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고민 끝에 헨델이 타개책으로 고안해낸 것이 바로 영어 가사로 된 오라토리오(oratorio)였습니다. 음악적으로나 경험적, 사업적으로 빠질 것 없이 뛰어났던 헨델은 영어 오라토리오로 마침내 재기에 성공합니다. 오라토리오엔 오페라처럼 이야기가 있는 음악극이지만 무대장치나 의상, 연기가 필요 없고, 일반 공연처럼 성악가들이 무대에 서서 연주합니다. 오페라와 비교해 제작비도 훨씬 적게 들고, 당시 고액의 출연료를 받던 콧대 높은 성악가들과 갈등 요인도 줄일 수 있으니 일거양득의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헨델에게 다시 성공을 가져다준 대표적인 영어 오라토리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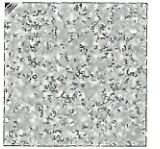
<메시아>의 초연은 헨델의 나이 57세인 1742년 4월 13일, 런던이 아닌 더블린에서, 교회가 아닌 음악당에서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탄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이 곡은 감옥에 수감된 죄수의 빛 탕감과 가난한 이를 위한 병원, 보건소를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주됐습니다. 600명을 수용할 음악당에 700명의 관객이 몰릴 정도로 공연은 성공했고, 이듬해 3월에 런던에서도 초연됐습니다. 서곡으로 시작해 총 3부, 53곡의 아리아, 중창, 합창 등으로 구성된 <메시아>의 가사는 헨델과 자주 음악 작업을 했던 찰스 제넨스(C. Jennens, 1700-1773, 영국)가 맡았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높았던 사람으로, 메시아의 가사를 성경의 구약과 신약 여러 곳에서 발췌해서 적절히 편집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이사야 같은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졌음을, 즉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확실히 알렸습니다. <메시아>는 초연 이후에도 모금을 위한 자선 공연에서 자주 연주되어 '구제(救濟)의 음악'으로 자리매김했고, 헨델 생전에만도 36회 공연될 정도로 인기 있는 곡이었습니다. 헨델이 세상을 떠나기 8일 전까지도 공연됐다고 하죠. 예수님 맞을 준비를 시작하면서, 자선 공연을 위해 작곡된 헨델의 <메시아>를 듣자니, 대림 기간 중에 어떤 형태로든 곤경에 처한 이웃돕기를 실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시아> 중 '할렐루야'
로열 코랄 소사이어티 &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메시아> 전곡 / 고음악 아카데미 (지휘: 오웬 리스) &
옥스퍼드 윈즈 컬리지 합창단(2021년 12월 공연 실황)





“선교 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

하느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출발’하도록 촉구하십니다. (『복음의 기쁨』, 20항 참조)

“일어나 가자”(요한 14,31)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21년 10월부터 시작하여 교구 차원의 시노드를 일단락 한 바 있습니다. 몇몇 대표들이 모여 현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회의 형태의 예전 시노드와는 달리 이번 시노드는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선교)’이라는 주제 아래, 모든 교회 구성원이 하느님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여정으로 초대받은 시노드입니다.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모두가 주인공으로 ‘참여’하며, 복음을 살고 증언하는, 곧 ‘선교’하는 하느님의 백성을 지향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 대화를 통해 자신을 나누고, 경청하며, 우리를 성덕으로 불러주시는 하느님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노드의 여정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교구 차원의 시노드를 통해 체험하기 시작한 ‘시노드 교회의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친교, 참여, 사명(선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커다란 슬픔과 고통, 혹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꿈을 접어야 했거나 진로마저 바꾸어야 했던 상황 등등, 경제적인 타격과 일상의 불편함과 제약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크고 많은 아픔과 힘든 상황을 헤쳐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

격 대 인격의 만남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비대면 활동으로 만족하거나 위축된 면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소극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해가던 우리의 모습을 떨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떨치고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에게 저는 선교 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새롭게 ‘출발’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된 사회에 대처하고, 더 나아가 참다운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로 바꾸어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저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교 선택’을 꿈꿉니다.”(『복음의 기쁨』, 27항)라고 하시며, “복음을 선포하는 노력이야말로 교회의 첫째가는 임무”(『복음의 기쁨』, 15항)라고 이 시대에 선교를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21세기 사회는 이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양극의 대립과 충돌을 보게 됩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정파 간의 대립과 충돌이 끊임없고, 경제는 경제대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강화되면서 특히 많은 젊은이들을 좌절케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예컨대, 신자 정치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당파적 입장을 넘어 교회의 가르침에 기초한 신앙인으로서의 신념을 곳곳이 주창하며 실천해 가는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경제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은 현대의 물질문명이 추구하는 감각적 행복을 넘어

서는, 신앙이 가져다주는 참행복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언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수도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도직에 앞서 무엇보다 하느님을 만나는 기도의 삶을 바탕으로 하늘나라의 행복을 증거하는 삶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사제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로 불리움 받은 그 신원 의식을 새롭게 하면서, 사목적 열정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올해 저는 다음 두 가지 면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1. 신앙생활의 근원인 미사성제에서 영적 힘을 길어냅니다.

미사 전례는 하느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場)입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하느님이신 아드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겪으시어 죽음에게 죽음을 선고하시고, 당신 살과 피로 우리를 먹여 주시어 참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만족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참생명과 참사랑이 행복의 기준임을 알아듣게 되고, 새로운 가치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이 참행복의 기준과 새로운 가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는 미사성제에서 길어냅니다.

미사 전례는 하느님과 사람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마주치는 여러 난관과 도전들 앞에서 때로는 힘이 빠지고 지치고 무너져가고 있을 때, 그 힘든 상황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을 그대로 안고 성당으로 달려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고통을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지고 가십니다. 온 세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빛어지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바쳐지는 미사성제는 하느님의 자비와 위로의 손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미사성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양육되어, 물질적인 가짜 행복이 판치고 여러 형태의 폭력이 일어나는 세상에 참된 평화를 심어나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출발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기쁨을 맛본 이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복음의 선포와 그 실천에 불리운 사람들입니다.

2. 우리 안에 다양한 신심을 새롭게 불 지킵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된 신앙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신심과 신심행위 그리고 신심운동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영성생활 활성화에 여러 신심 활동이 기여해 왔음을 인정하고 언제나 장려해 왔습니다. 성체조배나 성시간, 혹은 성체거동 등의 성체 신심, 첫 토요일 미사와 로사리오 기도 등의 성모 신심, 순교자 현양과 성지 순례 등의 순교자 신심, 성령 기도회나 성령 쇄신 운동 등의 성령 신심 등입니다. 다양한 신심활동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위축된 신앙생활에 새롭게 불을 지펴야겠습니다. 새롭게 불붙은 신심이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들어줄 것이고, 더 깊어진 그 신앙 안에서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더라.’하는 모습으로 우리 사회를 선구적으로 바꾸어 가는 복음의 일꾼이 됩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十 정순택

오늘(11월 27일)은 '대림 주일'입니다 교회의 새 해가 시작되며, 전례력은 '가해'를 따르게 됩니다

국군 장병 및 수감자를 위한 성탄 위문금

본 교구 소속 군종 신부들이 전후방에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을 위문하고자 각 본당에서 성탄 위문금을 모금합니다 또한, 좌절과 실의 속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 수감자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기 위한 위문금도 모금합니다

'생명수호주일' 이동 및 '생명 주일'과의 통합 시행
2008년부터 매년 12월 첫째 주일에 서울대교구에서만 시행해왔던 '생명수호주일'을 2022년에는 지내지 않고 2023년부터 매년 5월 첫째 주일, 주교회의가 정한 '생명주일'에 통합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구정월일

2023 가톨릭종교교육자 피정

대상: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교사, 교직원(가톨릭 신자)
때: 2023년 1월16일(월)~18일(수) 2박3일
곳: 성 바오로 피정의 집(시흥)
인원: 12월1일부터 선착순 40명 접수
문의(접수): 02)566-5456 학교사목부 사무실

향심기도 월피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회비: 1만원
지도: 이승구 신부 /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직장인	12월4일(일) 13시30분~16시30분
일반인	12월5일(월) 13시30분~16시30분

2022년도 명동대성당 대림 특강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아래와 같이 대림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 02)774-1784

때, 곳: 매주(월) 19시~20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11월28일(월)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4)	구요비 주교
12월5일(월)	대림시기를 잘 보내기 위한 마음가짐	유정춘 주교
12월12일(월)	주님, 제가 다시 볼수있게 해 주십시오.(루카 18,41)	손화송 주교
12월19일(월)	하느님 현존과 체험	정순택 대주교

청년 신심 운동 2022 하쿠나 인 코리아

스페인에서 전세계로 확장 중인 청년 신심 운동 하쿠나(Hakuna Movement) 전례에 청년을 초대합니다
문의: 02)777-8249 청소년국 대학교사목부

콘서트	12월7일(수) 19시30분, 서소문성지 역사 박물관 콘솔레이션홀
대축일 미사	12월8일(목) 19시30분 절두산 순교성지
성시간	12월9일(금) 20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때, 곳: 11월28일(월) 10시30분, 양천성당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서울대교구 사목상담 '내 일생의 치유 피정'

때, 곳: 12월2일~4일(2박3일), 아론의 집
지도: 문종원 신부 /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2022년 정기 세미나(사회홍보위원회)

주제: 혼인은 선물?! / 문의: 02)460-7623
때, 곳: 12월5일(월) 14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참조

25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2023년 1월27일~2월4일(8박9일)
주관: 성서못자리 / 지도: 허규 신부
문의: 010-6734-0190 심 소화데레사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박혜원 루치아 개인전 'crossover': 1전시실
이종석 알베르토 green 그림: 2전시실
김종필 조각전 Ecce Homo!: 3전시실
전시일정: 11월30일(수)~12월5일(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병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46차 미사 11월29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반주거역할본당 평양교구중앙본당, 함흥교구영흥본당
미사 후에 한반도 평화와 복원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023년 월요성경(사목국)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 인원: 500명
때: 2023년 1월2일~12월25일(52주) 매주(월) 13시~16시(90분 강와+미사) 온라인 동시 강의
곳: 가톨릭회관 3층 / 강의: 조창수 신부님
회비: 연회비 12만원 / 문의: 010-7586-5425(문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12월1일(목) 오후 2시~3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국장 신부, 김윤상 차장 신부(해외선교봉사국) / 문의: 02)727-2407, 2409

가톨릭 영유아(만 5세 미만) 부모교육

주제: 우리 아이와 함께 성경 읽기
강사: 박종수 신부(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지도신부)
때, 곳: 12월10일(토) 오전 10시~12시30분, 영성센터(구 계성여고) & 온라인 비대면 교육(ZOOM)-양방향
동시 진행 / 11월28일(월) 10시~12월6일(화) 16시까지 유아부 홈페이지(www.catholicinfant.or.kr) 접수
문의: 02)727-2115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직원모집

의정부교구 행산1동성당 관리장 모집

분야: 관리장 1명(계약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임용 가능)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본당신부님 추천서, 자격증 사본(소방·가스안전 및 기타자격증 우대) / 채용시까지 접수(본당 홈페이지 참조)

생명위원회 직원 모집

분야: 일반 사무행정 계약직 1명(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본당 주임신부님 추천서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개별 연락)
12월18일까지 이메일(vitavia_recruit@naver.com) 접수

서울대교구 성 안베르 센터 직원 모집

분야: 별정직인 0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업무: 조리업무 등 제반업무 가능한 분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문의: 02)2280-1784
채용시까지 이메일(imbert@seoul.catholic.kr) 접수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직원 모집

분야: 교구 언론홍보 담당 사무원 1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 이메일(commu@seoul.catholic.kr) 문의
대상: 세례 받은 분으로 초대졸 이상, 관련 전공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11월28일(월)~12월12일(월) 18시까지 이메일(commu@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직원 모집

업무: 가톨릭학생회(중·고등학교) 활동 지원 및 교재 연구
분야: 정규직 1명 / 근무: (화~토) 주5일 9시~18시 (일·월 휴무), 가톨릭청소년회관(혜화동)
대상: 세례 받은 대졸(예정)자 이상 / 11월16일(수)~12월2일(금) 18시까지 우편 및 이메일 접수
서류합격자 발표: 12월3일(토) / 자세한 내용은 학교사목부 홈페이지(www.kycc.or.kr)에서 확인 바랍니다
면접: 서류 전형 합격자에게 일정 관련 개별 연락
문의: 02)742-4151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자양2동성당 관리직원 모집 / 문의: 02)444-8444

분야: 계약직 1명 / 대상: 세례받은 성실하고 건강한 분
업무: 시설 관리, 미화, 기타 방호 업무 등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12월15일(목)까지 이메일(cmike7c@seoul.catholic.kr) 및 우편·방문(우 05106, 서울시 광진구 독성로 58길 81(자양동) 자양2동성당 사무실) / 접수 서류는 채용 확정 후 안전하게 폐기하겠습니다



영화 탄생

개봉일: 11월 30일(수)

상영관: 전국 CGV(1544-1122), 롯데시네마(1544-8855), 메가박스(1544-0070)

예매: 각 상영관 모바일 및 PC 홈페이지 참조 / 문의: 02)371-6927

한국의 첫 사제 성 김대건 신부님의 일대기를 다룬 최초의 극영화 <탄생>이 개봉한다. 조선 근대의 길을 열어젖힌 개척자 청년 김대건의 위대한 여정을 그린 대서사 어드벤처 바다와 육지를 넘나들었던 모험가이자 글로벌 리더, 역사를 바꾸는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굴의 도전정신을 불태웠던 선구자 김대건 신부님의 신학생 유학 시절과 사제의 탄생과 순교의 순간을 감동적으로 그린다.

❖ 30명 이상 단체 관람 시 할인 - 1인당 1만원 (단, 기준가격이 1만원 이하인 조조·경로·우대 등은 할인 안 됨)

인준단체 알림

모임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12월1일~31일 / 문의: 010-4198-7970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묵주기도, 성체조배
때, 곳: 12월3일(토) 16시30분~18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2023년 1월6일~9일·1월27일~30일·2월3일~6일·2월24일~27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추주, 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해설강의, 묵상, 미사
지도: 정 바오로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성가기도: 고영민(찬양선교사) / 성경직해 피정비: 1만원
때, 곳: 12월10일(토) 14시~18시, 구산성지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 갇힌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때: 12월16일~18일·12월31일~2023년 1월2일(한라산 눈꽃 산행)·1월7일~9일·1월13일~15일·1월28일~30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제주 자연 피정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돌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12월3일~5일, 12월9일~11일
연말연시 피정	12월30일~2023년 1월2일(눈꽃산행)
눈꽃산행	1월5일~7일, 1월27일~29일, 2월4일~6일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다함께 성가를' 발성교실 / 문의: 010-9842-8818
가톨릭평화방송TV 이호중 교수 직장
곳: 시스피나음악원(주최, 신촌)

새천년복음화학교 147기·95기 수료특강

내용: 특강, 미사 / 문의: 02)753-8765
때, 곳: 12월11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2023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원서접수: 11월14일(월)~2023년 2월10일(금)
우편접수 가능 / 문의: 02)745-8339

제21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pbccamp.com)

미국 (3주)	미국 LA 영어캠프(3인 1실 기숙사),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라스베이거스와 그랜드캐년,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 등 명문대 재학생 간담회
사이판 (4주)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2~3인 1실 리조트) 명문대 선생님 수학수업, 다양한 액티비티와 현지 투어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접수: 2023년 1월17일(화)까지 / ci.catholic.ac.kr
15명 미만 지원학과 개강 안 됨 / 문의: 02)747-8501

교리교육	주 5일	세례 3년 넘은 점진자
학과	주간(2년)	입회 2년 넘은 수도자
종교교육	주 3일	타 대학에 적이 없고
학과	야간(2년)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신학심화	주 3일	본원 교리·종교학과 준한 과정
과정	주간(1년)	이수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모임

예수고난회 재속3회원(동반자회) 모집

대상: 60세 이하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
접수: 11월30일까지 / 문의: 010-2657-0951

아마투스 합창단 단원 모집

때: 수시 / 문의: 010-9338-5276 김지선 총무
곳: 강서송도아트홀(등촌동) / 55세 미만 남성단원 환영
곡명: 가톨릭 성가곡 및 자유곡(악보 지참)

미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12월2일(금) 14시~16시 / 지도: 양창우 신부
곳: 가톨릭회관(전철 4호선 명동역) 1층 / 문의: 02)929-2977

11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11월30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성서가족 열린미사(목3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일 넷째주(일) 11월27일 15시
곳: 목3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오순절평화의마음 12월 후원회 미사 / 문의: 051)782-0765
때, 곳: 12월1일(목) 11시(미사),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웅기장학회 월례미사

때, 곳: 11월28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례: 김현균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박신언 몬시뇰 /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문의: 02)727-2525 사무국

12월 가정선교회 행사

미사와 식사 준비, 방역수칙 준수 / 문의: 010-6281-8626, 010-5674-8511, 010-2367-2297, 02)777-1773

토요 피정과 성모신심 첫 미사	12월3일(토) 14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박재찬 신부, 하성용 신부
성가제 영성 1일 피정	12월7일(수) 14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이상재 신부, 이현주 회장

인사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최영민 신부(예수회) / 문의(예약): 010-3173-266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ca.or.kr)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iscen.or.kr
전문심리상담: 부부 및 가족상담, 개인상담-정서불안, 우울, 분노, 의사소통의 어려움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기도패 신청

추모와 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합동 위령미사 봉헌(명절·위령의날), 매일 1회 추모와 축복미사 봉헌 / 문의: 02)2021-2700 사무실

청소년 언어·매체상담·종합심리검사(서울시립 청소년드림센터) / 문의: 02)2051-3743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특화기관입니다 /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곳: 천주교 살레시오 수도회(양천구 남부순환로54길 37)
내용: 언어상담, 매체상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 종합심리검사 / 회비: 언어상담 회당 5천원·매체상담 회당 3만원·종합심리검사 15만원(상담은 20회기 선납, 정부지원 취약계층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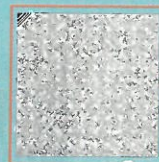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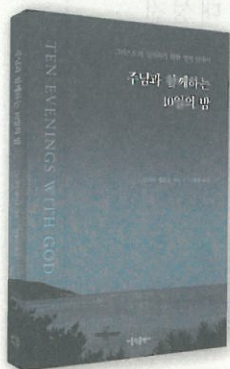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돈보스코 여자 재속회	수시	영등포구 신길6동 여의대방로65	0507-1306-1505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2월4일(일) 10시	서울 본부(동소문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02)924-3048(korvocation@columban.or.kr)
착한목자수녀회	12월17일(토) 14시	수녀원(전철 2·7호선 건대입구역)	010-7197-1390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마음을 밝히다

신간



주님과 함께하는 10일의 밤

일리아 멜리오 지음 | 16,000원

그리스도와 일치하기 위한
영적 안내서
교회의 위대한 영성가들을 따라
마침내 하느님 사랑의 길에 이른다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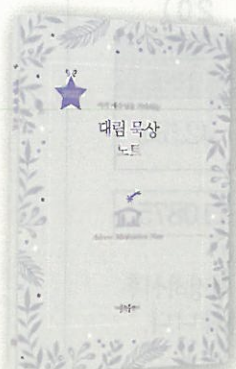


살아 있는 기도

안토니 블룸 지음 | 가격 미정

하느님과의 참된 대화를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는 책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고
깊이 있는 영적 대화를 나누는 시간

대림 시기 추천 도서



2022 대림 묵상 노트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지음 | 7,000원

대림 시기를 희망으로 채우는
4주간의 묵상
예수님이라는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다

대림 시기 추천 도서



별이 빛난다

자카리아스 하이에스 지음 | 13,000원

가슴 뛰는 대림과 성탄 시기를
위한 특별한 묵상집
현자들의 용감했던 발걸음처럼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를 불어넣다

대림 시기 추천 도서



내 마음의 대림 시기

마르쿠스 C. 라이트슈 외 지음 | 8,000원

성탄의 기쁨을 깨닫고
평온을 되찾는 4주간
하루하루 보람 있는
대림 시기를 위한 선택

대림 시기 추천 도서



그래도 희망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 12,800원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이유



제2256(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진주교연회동상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대림특강

강사 : 안병철 신부님

일시 : 11월 30일(수) 저녁 8시 / 대성전

주제 : '그리스도를 향하는 하나된 공동체'

◎ 성탄 집중 판공성사

일시 : 12월 15일(목) 저녁 7시 30분

장소 : 성전 및 임시 교해실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 (10월~11월).

성명	세례명	구역/반
이수진	스텔라	2-1
박형노	사도요한	2-5
권중혁	대건안드레아	2-5
허주성	안드레아	4-1
조재무	토마스	4-2
정지원	크레센시아나	5-1
김정희	미카엘라	5-2
곽창순	바오로	6-5
김태연	아네스	7-1
문치명	베드로	7-1
강재균	요한보스코	10-5
유지아	글라라	10-6
양윤영	모니카	10-7
정인경	아네스	기타

◎ 전입교우 환영식

일시 : 11월 27일(주일) 교중미사 후 301호

◎ 성모 신심 미사 : 12월 3일(토) 오전 10시

◎ 연령회 미사

일시 : 12월 6일(화) 오전 10시

매월 첫째 화요일 10시에 연령회(선종하신분들을 위한 미사)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견진성사 안내

견진성사 : 12월 3일(토) 오후 3시

예절연습 : 11월 29일(화) 마지막 강의 후

◎ 12월 4일(주일) 오후 2시에 주일학교 통합미사가 있습니다.

◎ 주일학교 성탄 케익 신청

아버지들이 힘을 모아 주일학교 아이들 성탄 케익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신청 : 12월 4일까지 / 해당 자모회장

※ 가정당 1개, 추가 15,000원

선물은 12월 25일 오후 2시 주일학교 성탄미사 때 드립니다.

◎ 반디가 만드는 주님의 잔치 (특별미사)

반디주일학교 학생들이 모든 전례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새롭지만 편안한 특별미사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12월 18일(주일) 오후 2시 / 대성전

◎ 연성회(70대) 송년모임

일시 : 12월 8일(목) 오후 5시 30분 / 201호
2부에는 식사가 있습니다.

*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송경원 베드로 회장 (010-5228-4707)

김무영 요셉 총무 (010-3891-4300)

◎ 여성구반장 회합

일시 : 12월 11일(주일) 12시 / 소성전

◎ 12월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축복식·어린이 축복식은 없습니다.

◎ 평일미사 반주자 모집

봉사시간 : 평일 06시, 10시 미사

문의 : 아네스 대표 (010-4538-5665)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11. 20)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118	873 (41.2%)	833 (39.3%)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책정한 세대는 12월분까지 납부해주시고,
미책정 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무금을 책정하신후
2022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헌금 (11월 14일~20일)

주승우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정재현	삼십만원	송기중	일십만원
이미경	일십만원	김민재	이만원
이지만	이십만원	정수영	일만원
홍정에	일십만원	박은영	오만원

◎ 우리들의 정성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교무금.....7,889,000원

주일헌금.....5,236,600원

입당	93	봉헌	212, 210	성체	167, 163	파견	91
----	----	----	----------	----	----------	----	----



기 때 하 며 주 님 의 접 으 로 가 리 라